도덕성과 공감, 법 기술이 필요한
공감은 도덕성의 기본이지만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.
1987년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 이후 경찰 개혁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가 제도화되었다.
공감은 때로 편견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약자 보호의 출발점이다.
공감은 개인의 도덕성이지만 법과 제도는 그 공감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장치다.
공감은 도덕의 시작